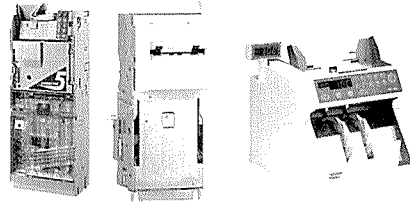


기술만이 살길,



씨케이테크놀로지의 거침없는 도전



2007년부터 발행되게 될 1000원 신권으로 인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판기 운영 업체들은 신권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의 매출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을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기계 제조업체들은 당장 내년 매출에 끼치는 악영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신권발행에 대해 가장 희색이 되는 분야는 뭐니 뭐니 해도 지폐식별기 유관업체 일 것이다. 신권발행으로 인해 기존 자판기에 대한 교체수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업적인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자판기 산업계라 할지라도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인간사가 새옹지마(塞翁之馬)인 것 마냥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싶다.

그렇다면 신권 시장에 있어 최대의 수혜주가 될 업체는 어디일 것인가? 기술수준과 사업 투자여건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씨케이테크놀로지사가 유력한 대상이다. 작년 9월 체제를 일신하여 새롭게 출범한 씨케이테크놀로지는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근저로 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신기술 향상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아끼지 않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1000원 신권대응 사업은 물론 게임기 분야, 지폐계수기 분야 등 자판기 영역 넘어서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원대한 사업포부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두려울 것 없는 거침없는 도전으로 회사의 가치 및 성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용 일 대표이사

씨케이테크놀로지 변신의 배경

아직 산업계 내에는 씨케이테크놀로지라는 상호를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씨케이테크놀로지라는 상호로 자판기 산업계에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업의 전신이 한국콘락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생소함이 오간데 없어질 것이다. 화폐식별기 분야의 역사

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콘락스가 씨케이테크놀로지
로 체제를 일신하며 지난 해 9월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었다. 이 변신의 배경은 좀더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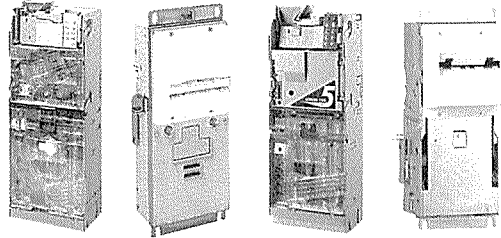
한국콘락스가 20여 년 동안 화폐기 분야로 오직 한길
을 걸어 왔다면, 씨케이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사업영
역은 훨씬 광범위하다. 기존의 자동판매기를 중심으로
한 화폐식별기 사업이외에도 지폐계수기, 게임기 식별
장치, 금융관련기기 등의 사업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의 추구가 가능한 것은 씨케이테크
놀로지의 기술지원 인프라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오랜
파트너인 일본콘락스와는 돈독한 기술 제휴 관계를 유
지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는 스위스 MEI사도 사업 파
트너로 끌어 들였다. 세계시장을 커버하고 있는 양 날
개를 달고 있으니 거침없는 비상을 꿈꾸는 게 당연하
다. 어떤 국내회사보다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다
양한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씨케이
테크놀로지의 최대 강점이다.

끊임없는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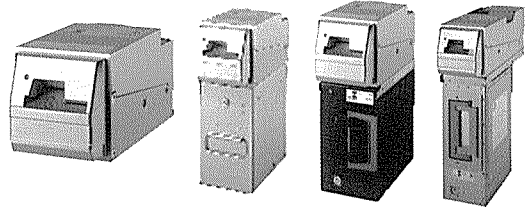


더 구체적으로 씨케이
테크놀로지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자.
여전히 자동판매기
코인메카니즘, 지폐
식별기 분야에서는
지존의 자리를 지키
고 있다. 뛰어난 기술
력을 바탕으로 업체
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
격경쟁력까지 갖추어 더욱 큰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
고 있다.
자판기 분야이외에도 역무기, 무인주차기, 게임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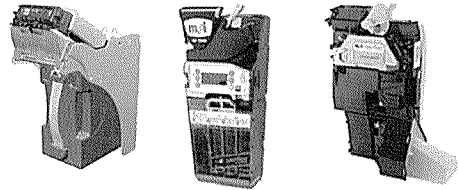
자 판 기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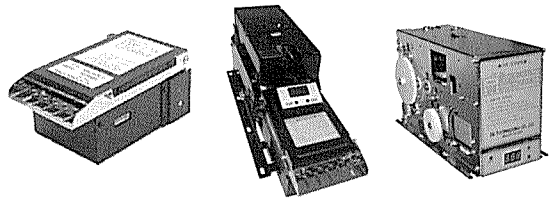
지 하 철 용



주 차 장 및 키 오 스 크 용



게 임 기 용



도 주목해야할 사업영역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 사업
투자를 진행하는 게임기 분야 화폐식별기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자판기 산업계의 대외적인 시장환
경이 여전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데 비해 게임기 시
장은 매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유망사업 분야이다.
그간 저가 위주의 지폐식별기가 유통이 되는 시장이었
는데 씨케이테크놀로지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제

품으로 승부수를 던질 계획이다. 게임기용 지폐식별기, 지폐 및 상품권 배출기는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되어있는데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더욱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상품권 인식기, 상품권 편칭기도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폐계수기, 지폐디스펜서 등 금융기기 사업도 씨케이테크놀로지가 비중 있게 생각하는 사업 분야이다. 위폐까지 감별이 가능한 고품질을 갖춰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는 지폐계수기는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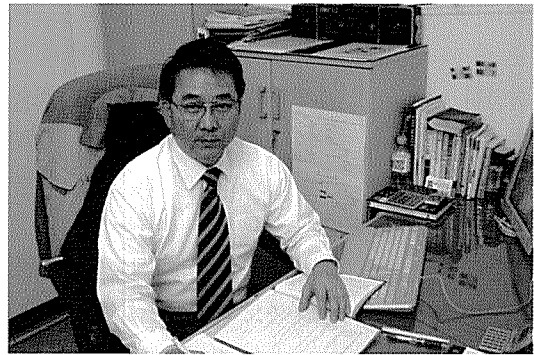
씨케이테크놀로지의 사업 행보에 있어 이채로운 점은 완제품 분야로의 사업진출이다. 핵심 부분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사업한계에 목을 매기 보다는 좀더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제품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완제품 분야로의 사업을 진행하는 모델은 지폐계수기, 골프채 세척기 등을 들 수 있다.

초음파를 이용한 골프채 세척기는 주문생산을 통해 사업 모델로 채택한 품목으로 골프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보급 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후속 완제품 사업 모델들도 속속 개발 출시를 진행하게 된다. 부분품과 완제품을 아우르는 종합 제조업체로 성장이 씨케이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1000원 신권 발행에 따른 최대의 수혜업체를 노린다



1000원 신권 발행에 따른 최대의 수혜업체. 현시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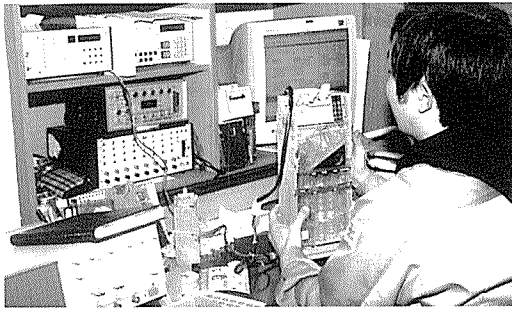
▲ 영업을 총괄하는 김순태 이사

서 볼 때 씨케이테크놀로지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뛰어난 기술 개발력에 높은 업체인지도, 여기에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할 자금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씨케이테크놀로지는 1000원 신권발행이 기업의 사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신권에 맞는 지폐식별기의 기술개발 및 사업청사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 높은 신1000원권용 지폐식별기를 개발하는 일이다. 1000원권 지폐열람이 가능한 내년도 초가 되어야 기술개발이 급진전 될 수 있으나 이미 지난 8월부터 기구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진행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열람기 수입을 완료했다. 이 장비는 슈퍼 노트 같은 개발기기로 다양한 열람조건에서 지폐의 미세한 부분을 체크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능한 모든 기술 개발력을 총동원해 어떤 자판기에도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폐식별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이다. 또한 지폐노후 등 어떠한 악조건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해 명실 공히 최고 품질 수준의 제품을 지향하고 있다. 먼저 제품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품질



수준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2006년부터 본격화될 기존 장비에 대한 교체사업을 위한 계획도 서서히 청사진이 마련되고 있다. 자판기 메이커를 통한 교체수요이외의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가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씨케이테크놀로지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판기 운영자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교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폐식별기 보상판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만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

씨케이테크놀로지가 다양한 사업영역 확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에는 남다른 기술력이 있다. 화폐인식기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러한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R&D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권 지폐식별기 개발에 만 무려 10억원여가 투자가 되며, 2008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인 저가형 ATM 개발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 마트 등의 유통시설을 무인화하는 新리테일 및 트랜스 포트 시장 진입을 위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닌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기기 및 조립사업의 다각화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MEI, 일본콘락스에 의존해 왔던 전자부품을 씨케이테크놀로지를 통해 조립해 해외시장으로 역수출을 하는 사업모델이다. 말하자면 MEI, 일본콘락스사의 해외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까지 담당을 하게 된다.

기술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은 씨케이테크놀로지의 전략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씨케이테크놀로지의 김용일 사장은 기술만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세계최고를 지향하며 기술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비교우위를 갖추고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영업은 절로 풀려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술선점만이 살길이라는 김용일 사장의 모토는 씨케이테크놀로지를 오늘보다 내일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7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하고, 그 후에는 세계시장까지 호령할 야심에 찬 기업성장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적극적 도전정신으로 뚝뚝 뭉친 씨케이테크놀로지의 뜨거운 에너지가 무기력에 신음중인 자판기 시장에 있어 신선한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